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제시…韓은 다시 협상

대만 합의조건 따라 한미간 협상 기준점 적용 우려
협상 주도권 쥐려는 美 “승인한 투자만 관세 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한국은 미국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반도체 관세 우대를 받아내기 위해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할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 중 대만에 대해 가장 먼저 대미 투자와 연동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 한국이 경쟁국인 대만에 준하는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반도체 전반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관세 수준과 면제 여부 등을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포고문을 통해 지시한 사안인데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공급망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주목된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출하는 반도체는 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그 유파이 15일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

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5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한다.

미국에서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1.5 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이런 조건은 앞으로 한미간 협상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작년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당시에는 미국이 반도체 관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합의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에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무역 확장법 232조 반도체 관세의 경우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약속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내용에 최소한 준하는 수준의 관세 면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아 현재 단계에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며 향후 한미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의 큰 틀을 밟았을 뿐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대만 정부가 2500억달러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민간의 투자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텍사스주 티일리에 17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70억달러로 확대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달러를 투입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이런 투자에 대해 어느정도의 관세 면제를 허용할지가 앞으로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사우디투자포럼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대화하고 있다. 랭글스

푸틴 러시아대통령 “한국과 관계 회복 기대”

이석배 대사 등 34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 관계가 회복되기 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연설하면서 “과거 양국은 실용적인 접근을 유지

하며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한국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와 한국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기반 이 많이 낭비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서방의 대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도 한국에 대해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며 밀착을 강화, 한미 관계 회복 전망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석배 주한대사와 한국대사도 참석했다. 신임장 제정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서방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비우호국

인 한국과 관계 회복 의지를 내비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12월 이도훈 당시 대사가 참석

한 신임장 제정식에서도 “러시아와 한국

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

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 한국은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대선소방설비산업
(주) 대선이엔지
(자) 대선산업개발

(주) 일등소방
(주) 유덕전기소방공사
(주) 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